

특별선교주일

인종평등선교주일

헌금 전 이야기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인종평등선교주일 헌금 전 이야기

연합감리교회와 세상, 또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들은 변화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됩니다. 교회는 걱정, 염려, 변화의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돕는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들은 너무나 자주 빈곤에 묻힙니다. 의료, 교육, 안전한 주거에 대한 불공평한 기회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모두 매일의 생존을 위해 허덕이는 이들에게 주신 은사를 놓치게 됩니다.

인종평등선교주일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날입니다.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가 함께 특별헌금을 드려 지역사회 개발자 프로그램 (Community Developers)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을 후원하고, 연합감리교회 자원봉사 프로그램 (United Methodist Voluntary Services)을 통해 지역사회 인권 옹호 사역을 지원하며, 청소년 범죄자 재활 프로그램 (Youth Offender Rehabilitation)을 통해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후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공동선을 만드는 일에 쓰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인도할 치유와 소망을 제공하는 일을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예물과 후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람들과 함께 고통 중에 있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임재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우리 교회는 _____ (예시를 나눠주세요)와 같은 사역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우리가 속한 연회는 _____ (연회의 선교 프로젝트의 예를 나눠주세요)와 같은 사역을 위해 함께 일합니다. 또 우리가 속한 연합감리교회 교단은 하나님



인종평등선교주일 헌금 전 이야기

의 자녀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공평과 정의를 위한 기회를 만드는 일을 통해 전 세계 각 지역에서 관계성을 강화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이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를 나누는 일을 통해 우리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말했던 “사랑받는 공동체”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아낌없는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체크 메모난에 “인종평등선교주일”을 적어 교회에 헌금하셔도 좋고, 웹사이트 UMC.org/SSGive에서 온라인 헌금을 드리거나 월 약정 헌금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 기도

넘치는 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모든 연합 감리교회가 함께 드리는 인종평등선교주일 헌금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굳건하고 건강한 지역사회와 교육 기회가 생기게 하시고, 영적 자양분이 되어 주님의 사람들을 감화하게 하소서. 이 예물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사, 관계를 구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하는 사랑받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쓰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